김선희 교수의 변상도 바로 읽기 ⑫ 약사정토변상도

▶ 한줄 요약
돈황 막고굴 제17굴 장경동에서 발견된 '약사정토변상도'는 당나라 말기 조성된 수작이다. 약사여래가 주재하고 있는 '동방정유리국토'를 도상에 담아내고 있다.



중생 치유 약사여래 신앙 요체 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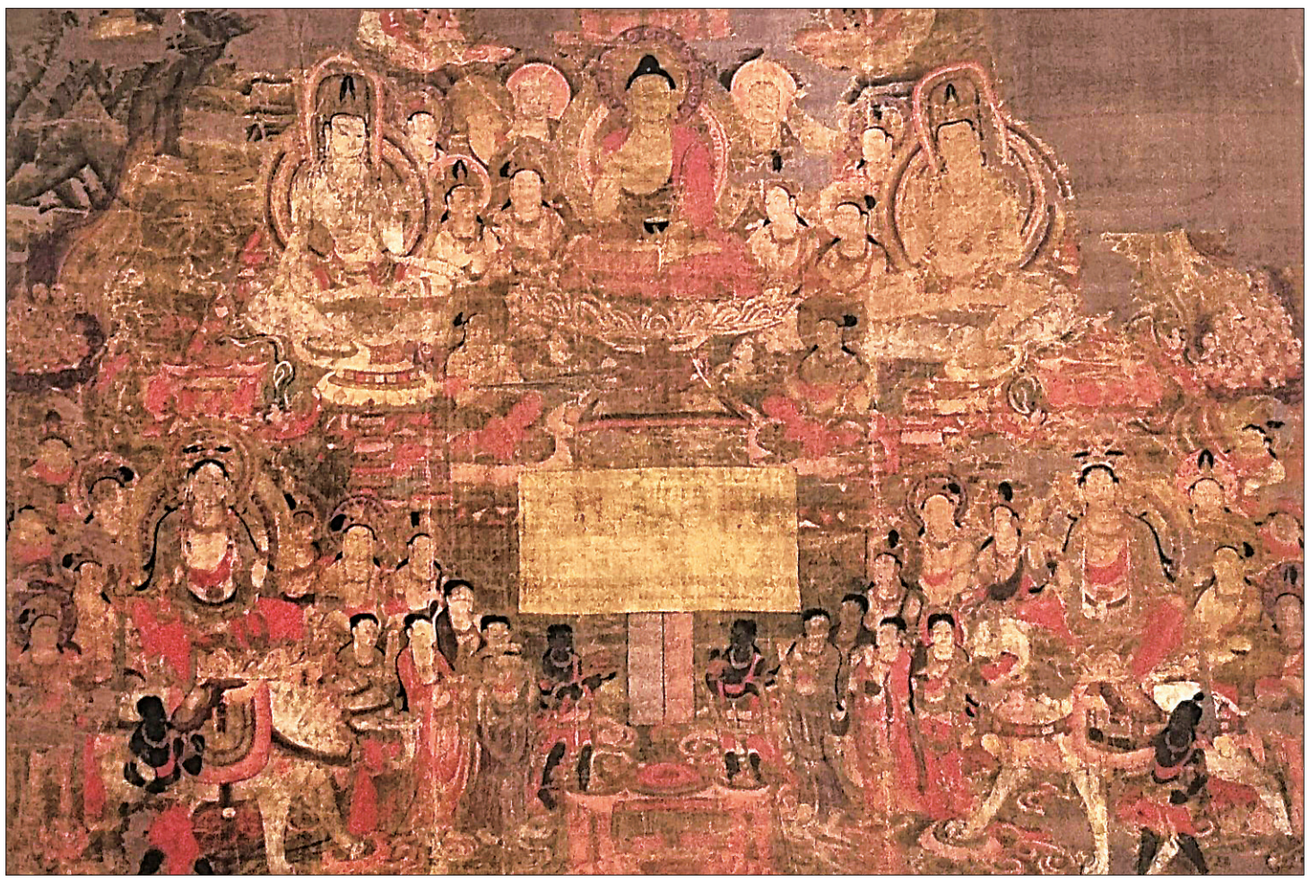
지난 연재 '유마힐변상도'를 통해서 돈황의 벽화가 성당 시기에 이르러 점차 중국전통 회화 표현 방법인 선묘화(線描畵) 위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변화의 현상은 당말, 오대, 북송에 이르면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번 연재에서는 그 변화를 역력히 읽을 수 있는 당(唐)말의 작품인 '약사정토변상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열반경(涅槃經)〉에서 설한 "부처님과 보살이 큰 원인이므로 선지식이라 이름하나니, 왜냐하면 병을 알고 약을 알아서 병에 맞추어 약을 주는 까닭이다"는 법구와 같이, '선지식'은 중생이 처한 심신의 고통에 따른 법의 처방을 내려주므로, 병을 고치는 의사로 비유한다. 이는 더 많은 중생을 법의 치유로 이끌고자 하는 대승사상의 이행도를 통하여 불퇴전의 자리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약사불 경전은 비교적 늦은 시기에 출현한 정토경전이다.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약사경〉은 그 내용 중 아미타불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미타불 경전보다 늦은 시기에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당대 현장이 650년에 역출한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 등이 유통됐고, 당 의정이 구법 후 돌아와 번역한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은 칠불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혜간 역본을 제외한 나머지 4부 경은 대장경에 수록됐으며, 이들 경전을 통칭해 〈약사경〉이라고 부른다.

스타인(Stein)의 수집목록에 있는 1265년 감숙성(Gansusheng, 甘肅省) 돈황 제17호 동굴에서 출토된 〈약사경〉을 회화로 표현한 '약사정토변상도'가 있다. 이 그림은 약사여래 외에 그를 호위하고 있는 보살과 신장, 그리고 비천을 중심으로 천수천안관음보살 등이 동방정유리정토를 묘사하고 있다. 영국학자인 아서 데이비드 웨일리(Arthur David Waley) 박사는 스타인이 수집한 돈황 회화 카탈로그를 작성할 때만 해도 이 주제를 읽을 수 없었으나, 몇 년 동안 적외선 촬영을 통해 그 내용을 판독했다. 연대기, 한문으로 된 비문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세로 형식으로 쓴 화기에는 총 9행으로 내용과 토번문이 중복됐고, 연대 표기가 아주 명확히 기록됐다. 주불은 '약사여래법좌'이며, 가로 형식의 티베트어 텍스트에는 기증자가 자신의 건강을 기원하며 법을 설하는 승려임을 알 수 있다.

돈황 장경동 제17굴 발견 대영박물관 소장 '약사정토변상도'의 전체 화면은 3단 구성으로 나눠지는데, 1단은 약사여래와 함께 2협시보살 그리고 많은 권속들이 상단 중앙을 차지하고 있다. 2단 중앙 노란색 직사각형 화기의 양쪽에는 문수과 보현보살이 있다. 세 번째 단은 화면의 하단에 해당된다. 중앙에는 천수천안관음보살, 왼쪽은 변신 관음 중의 하나인 여의륜관음, 오른쪽의 손상된 한문의 화기를 판독해 보니, 또 다른 변신 관음인 '불공견삭관음(不共羂索觀音)'이다. 약사 삼존불은 대좌에 앉아 있으며, 중단의 문수와 보현보살 그리고 관음보살이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다.(그림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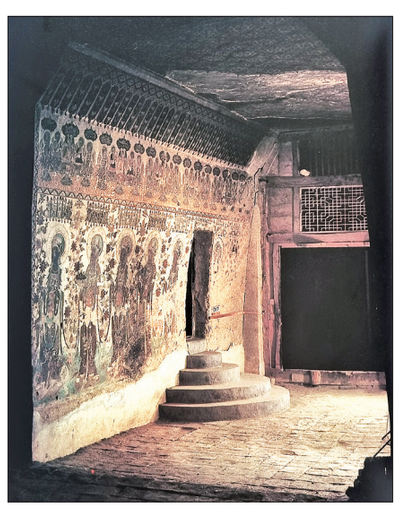


그림①. 영국 대영박물관에 소장된 '약사정토변상도'. 당나라 시기에 조성됐다.

돈황 제 17굴 발견된 약사정토변상도
약사불 주재 '동방 정유리국토' 구현
唐末 조성된 수작…약사신앙 담아내
장경동 발견, 역설적으로 돈황학 시작

토번(吐蕃) 시기 돈황 지역에서 문수, 보현, 관음보살이 널리 보급되었다는 사실은 이 그림의 문수, 보현, 관음 세 보살이 화면에서 차지하는 넓은 공간만 보아도 당시의 성행을 알 수 있다. 사실, 이 그림은 '약사정토변상도'의 형식을 완전히 갖추고 있지는 않다. 이는 토번 승려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만들어진 작품일 것이라 짐작된다. 그림의 아래쪽 절반 이상이 박락(剝落)됐지만, 이 그림은 남아 있는 돈황 견본(絹本) 회화 중에서 초대형 작품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토번 시기의 돈황 회화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약사여래의 상호는 자비롭고, 의태는 장엄하고, 오발육계(烏髮肉髻, 검은색 육계)이며, 귀는 어깨에 드리우고 있다. 약사불은 붉은색 가사를 입고 결가부좌하고 연화보좌 위에 앉아 있으며,



그림②. 돈황 막고굴 제17굴 장경동 입구.

오른손은 가슴 앞에 결인(結印)을 하고 왼손은 배꼽 앞에서 약합(藥盒)을 들고 있다. 양쪽에는 월광과 일광보살 및 권속들이 둘러싸여 약사삼존불을 형성하고 있다.

약사여래는 보살대중의 상수(上首)인 좌협시 일광보살과 우협시 월광보살의 협시를 받으며 정토를 주재한다. 일광보살은 '일광편조(日光遍照)', '일요(日曜)' 등의 명칭으로도 불리며, 약사불의 좌협시이다. 우협시 월광보살과 함께 '동방정유리국토'에 있으며, 약사불의 양대 보좌로 약사삼존불로 불린다. 일광보살은 인도풍의 가벼운 옷차림으로 반(半)가부좌 자세로 앉아 있다. 몸을 한쪽으로 기울이고 머리는 옆으로 돌리고 있는데, 머리의 한쪽은 약간 길고 반대쪽은 약간 짧아 깊이감이 있다. 월광보살은 인도풍의 가벼운 옷을 입고 반가부좌 자세로 앉아 있다.

경전에 의하면 '동방정유리국토'는 이곳에서 동방으로 10항하 모래수의 불국토를 지나서 자리한다. 이곳의 땅은 유리로 돼 있고, 성과 대궐, 누각, 난간 등이 모두 칠보로 장식된 청정세계이다. '약사유리광여래'는 본래 보살도를 행하실 때, 12대원을 세워 중생을 구제하고자 했다. 이 12대원은 궁극적인 무상보리로 이끄는 불퇴전의 자리를 보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질병, 빈곤, 장애, 차별, 의식주, 송사 등 현실의 구체적인 재액과 고통에 대한 구제의 원이 담겨져 있다.

문수와 보현의 상호는 거의 좌우 대칭이며, 머리카락은 길고 매끄럽고 어깨에서 손목까지 여러 매듭을 볼 수 있다. 문수보살은 사자를 타고 번(幡)을 들고 있다. 화개 상공을 둘러싸고 춤을 추는 작은 비천들이 구름을 타고 위에서 날아와 중앙으로 향하는 듯하다. 여기서 번은 〈약사경〉에서 중생이 재액을 막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재식의 주요 도구로 등장한다. 즉 병자를 위하여 "약사유리광여래께 귀의하고 많은 스님을 청하여 이 경을 독송하며, 등을 밝히고, 목숨을 이어 달라"라고 기원하기 위함이다. 보현보살은 코끼리를 타고 권속들로 둘러싸여 있고, 비천들이 구름을 타고 위로 날아오르고 있다.

하단의 중앙에는 천수천안관음보살이 있다. 화면 하단 왼쪽에는 변신 관음 중 하나인 여의륜관음과 오른쪽에는 불공견삭관음이 있다.

그림 전체를 보면, 모든 사물을 유려(流麗)한 묵선(墨線)으로 묘사하고 거기에 설색(設色)을 하고 있는데, 색채의 처리가 이전의 벽화에서 보이는 것 처럼 투박하거나 중첩되지 않고 엷고 담박한 것이 특징이다. 아직 보살의 복장에서 인도풍을 발견할 수 있으나 회화표현은 완전히 중국화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색채는 퇴락했어도 묵선은 여전히 생동감 넘친다.

이처럼 '약사정토변상도'에 그려진 약사여래 신앙은 중생들에 대한 자비를 근간으로 대승불교 사상에 입장에서 빈곤과 질병, 번민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생산됐다. 고통이 결코 수용 혹은 부정의 대상이 아니라 치유의 대상이 된 것이다. 당대 이후 불교의 밀교화, 세속화로 연결되며, 오늘날 한국의 불교문화에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약사정토변상도'가 발견된 장경동은 막고굴 여러 석굴 중 제17굴을 말한다. 원래는 당나라 후기(만당시대)에 당나라 고승 홍변(洪辯)을 기리기 위해 만든 동굴이다. 그러다 200여 년이 지난 1100년 무렵 돈황 문서라 불릴 3만여 점의 문서를 제17굴에 가득 채워놓고 입구를 막았다.(그림②)

제17굴은 석회로 발라져 있고, 여기 송대(宋代, 960~1276)의 벽화가 그려졌다. 이 안에 유물들은 1038년 서하의 침입으로 인해 넣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돼 폐기된 것이라고 위드휠드(Roderick Whifield)가 주장하였다.

1900년 왕원록(王圓籙)이 새로 도교 사원을 지을 목적으로 대규모 청소를 하던 중 조수 양(楊)씨가 제16굴 벽에서 뭔가 울림소리를 듣고 왕원록에게 알렸다. 이 굴 안에서 약 50,000여 점에 달하는 불경과 관련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한편 장경동 제17굴에서 유물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서방 탐험가들 중 대표적인 1907년에는 영국의 오렐 스타인(Aurel Stein 1862-1943), 1908년에는 프랑스의 폴 펠리오(Paul Pelliot 1878-1945)가 희귀도서를 사들여 중국 및 국외로 유출시켰다. 1911년 오타니(大谷, Otanti) 탐험대는 투르판, 돈황 등지에서 중앙아시아 불화들을 수집했는데, 이 가운데 제17굴 발견 불화는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역설적으로 이 제17굴 발견 유물은 중앙아시아의 역사와 미술사 연구, 불교경전 연구 등 돈황학(敦煌學)의 탄생에 이바지 한 샘이다.

현재 돈황 문서는 영국의 대영박물관, 프랑스의 기메 박물관,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박물관, 중국국가박물관, 대만국가도서관, 홍콩중문대학 문물관, 대한민국의 국립중앙박물관 등 전 세계 여러 곳으로 펴져 있다.

〈동국대 연구교수(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우공침술
개·인·교·습
딱 6일 만에 우공이 개발한 TLS 침법을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TLS 침법은 어깨, 허리, 무릎의 통증과 같은 우리 몸의 모든 통증들 및 수많은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기발한 침법입니다. TLS 침법은 신경학, 면역학적인 원리에 의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어려운 경락이나 경혈들을 애써 익히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뇌가 통증을 유발시키는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 TLS 침법으로 자극하는 테크닉만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6일 동안에 침술을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침술을 배우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침술을 너무 어렵게 배우고 있습니다. 별 의미도 없이 지나치게 형식화된 경혈을 죽어라고 익히고, 그곳에 단순히 침을 찌르는 방법을 배우는 게 침술을 제대로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침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발한 침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딱 6일만 시간 내시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발한 TLS 침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지방분들은 3일 동안의 속성과정으로도 배우실 수도 있습니다. 우공침술의 침술 개인지도는 1:1의 철저한 실습위주로 실시되며, 서울은 물론 지방의 어느 곳에서든지 저에게 오셔서 교습을 받으시거나 또는 제가 방문하여 교습해 드립니다.
NAVER 우공침술 ▼ 검색 하시면
저의 블로그에 접속되며, 그곳에서 침술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공침술연구원 문의 및 수강신청 : 010-4054-7110

www.holytec.com
오리지널 유골 보석
영옥(靈玉)
· 납골의 변질과 혐오감이 없습니다.
· 깨끗한 모습으로 영구적입니다.
20년을 유골성형 한 길로 고인 고유의 색상을 발현시켰습니다.
▣ 1기 생성 소요시간 60~90분 소요 ▣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 검색
상담 : 010-5235-2677